

광주 국악악단 '도드리' 문광부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업 선정

매 주말 신명 한마당 펼친다

광산구 쌍암공원서 상설무대

광주 대표 국악 축제 발돋움

'신명난 국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국악은 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관객과 예술인들이 어우러지며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제맛이다.

문화관광부는 4개년 계획으로 국악 대중화와 공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연계한 '문화 명소'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야외 국악 상설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광부 사업 공모 결과 2007년 광주 지역 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는 국악실내악단 '도드리'(단장 김재섭). 올해로 창단 10년째를 맞는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는 올 한해 모두 1억5천만원(국비 1억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국악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은 오는 5월 26일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첫 무대를 장식하는 '도드리' 등 14개 팀이 번갈아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레퍼토리는 창작국악가요, 시나위, 모듬북 타악 퍼포먼스, 채상모 놀이, 남도민요, 판소리, 가야금으로 듣는 판음악, 사물놀이, 민요병창, 대중가요와 국악의 만남, 진도북춤 등 장르를 아우른다.



올 한해 매주 토요일 쌍암공원에서는 국악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열린다. 행사를 기획한 실내악단 '도드리'의 공연 모습.

참가단체는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광주가야금연주단, 이영애가야금병창, (사)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하늘다래, 무용단 '돌음' 등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젊은 국악인들의 공연이 눈길을 모은다. '신진 국악인 발굴'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도드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목 튀는 신세대 국악인들을 중심으로 팀을 선별, 무대를 제공한다.

참가 단체는 광주국악축제연주팀 '가람취', 가야금중주단 '그린나래', 장원무용단, 류니용무용단, '리멤버 위', '신시악' 등이다.

도드리 김재섭 단장은 "이번 공연은 사업주체인 '도드리' 역시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많은 국악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며 "실력은 뛰어나지만 발표 무대를 갖지 못한 단체,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신진그룹들에게 무대를 제공, 지역의 대표 국악축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66-58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산뜻한 붓질 은은한 꽃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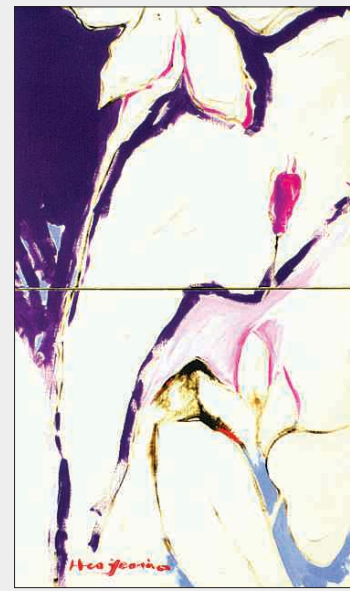
허정첫 개인전

17~23일까지 무등갤러리

바람에 흠날리는 꽃잎이 캔버스에 수놓인다. 농익은 색으로 형상화한 꽃의 이미지가 은은한 향기로 다가온다. 산뜻한 붓질에 맞춰 꽃잎이 다양한 변주를 펼친다.

10여년 동안 꽃을 가슴에 품어온 작가 허정씨가 17~23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꽃 그림을 펼쳐 보인다. 캔버스를 마주한 이래 처음으로 갖는 이번 전시에서 허씨는 'Twist Flower'를 주제로 자신이 심고 가꾸은 꽃밭을 터트린다.

화폭에 맺힌 꽃들은 바람에 있을 때의 가녀린 꽃잎이 아니라 원초적인 생명력과 향기를 담고 있다. 이같은 이미지는 작가가 대담하게 채택한 원색으로 한층 무르익어 캔버스를 가득 채운다. 연작 'Twist Flower'에서 형상화된 꽃들



'Twist Flower'

은 작가의 분방한 붓질로 인해 풍부한 감성을 드러낸다.

대학졸업 후 20여년 만에 첫 개인전을 갖는 그는 그동안 축적해온 '내공'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작업들을 선보인다.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 놓여있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꽃을 직화하게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형태나 색감으로 꽃을 추상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이 앞으로 추구할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누구나 작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굳이 꽃을 소재로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허정씨는 "과연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회의 때문에 지난 90년부터 한동안 붓을 놓기도 했었다"며 "작품 소재와 주제는 물론 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꽃은 이같은 회의를 잊게 해주는 대상이자 탈출구였다"고 말했다.

개천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씨는 남부현대미술제, 정예작가 초대전, 2007국제현대미술제 초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현재 호남대, 동신대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술에 세번째 문집 낸 '국내 소아과 전문의 2호' 손철씨

"긍정적으로 살면 삶이 행복합니다"



올해로 '미수(米壽)'를 맞는 '국내 소아과 전문의 2호' 손철(88·사진)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글을 모은 세 번째 문집 '철(哲)3'(승정 펴냄)을 출간했다. '철(哲)3'은 지난 1980년과 1991년 출간된 '철', '철'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예의 재기발랄하고 박학다식한 글솜씨를 보여준다. 저자는 1970년대 광주일보 전신 전남매일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문장력을 과시해왔다. 책은 1991년 이후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글, 유럽으로 남미로 동남아로 틀만 나면 떠났던 여행의 느낌을 적은 글, 1999년과 2003년 북극과 남극으로 떠난 크루즈 여행기, 음악가 바그너에 대한 글 등이 실려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묻어나는 저자의 후기는 90세에 가까운 그의 장수 비결을 짐작케 한다. "88세가 되도록 살고 있다는 이 행복을 누구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철'이 행복의 절정에 우뚝 서 있음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풍을 떨치면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는다는 말입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창작 피아노 독주곡 공모 본선 16일 광주문예회관

지난 1990년 창립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김진사 전남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2회 창작 피아노독주곡 공모 본선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3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는 피아노아카데미가 참신한 피아노곡 발굴을 위해 젊은 창작인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공모 연주회로 교향화(작품 '천지창조'), 이원경('기하'), 양재현('소나타'), 박민승('대학'), 우해선('파편')씨 등 전국 각지에서 작곡 전공자들이 참여했다. 연주자는 조현영·박수미·조혜원·박재희·김정아·이근영·강서정·이주희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90여점 1억 5,000만원 판매고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 광주 작가들 가능성 확인

13일 폐막한 '2007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 광주 작가들이 1억5천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확인했다.

14일 한국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한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에 따르면 지난 9~13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관 등지에서 열린 이 행사에 지역 작가

7명이 참가, 작품 90여점(판매액 1억5천만원)을 판매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참여 작가는 고근호, 서정봉, 손봉채, 이이남, 주리영, 주홍, 최은태씨 등 7명.

특히 전통 민화와 남종화를 바탕으로 한 초충도와 문인화 병풍 등을 디지털 영상으로 선보인 이이남씨는 '한국 8폭 병풍'을 8천만원에 파는 실적을 거뒀다.

이씨는 또 뉴욕 헬시의 갤러리, 독일 베를린 국제전 등 국내외 전시에 초청받는 등 해외 큐레이터와 미술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전거 시리즈와 입체공경(필름작업) '잃어버린 시간' 등을 출품한 손봉채씨도 작품 6점을 판매했으며 파충류처럼 거어가는 인간군상 400여점을 전시한 주리영씨도 작품 70여점을 팔았다.

고근호, 서정봉, 주홍, 최은태씨도 전시작품 대부분을 판매하는 등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한편, KIAF 사무국은 이번 아트페어에 참가한 전세계 18개국 208개 화랑이 5천여점의 작품을 판매, 175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내 상설공연 어떤 게 있나

남도소리 상설무대... 빛고을국악전수관서도 공연

광주에서는 실내 상설 공연도 만날 수 있다.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다양한 국악장르를 선보인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모두 10작품을 올린다. 하

나무용단 공연, 김상훈 아쟁독주회, 황송옥가야금병창독주회, 임순자의 춤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510-9251.

지난 2002년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는 매주 한차례 국악공연이 열린다.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열리는 '목요일 국악한마당'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만날 수 있다.

전수관에서는 국악강습도 실시하며 국악관련 전시실도 함께 운영중이다. 문의 062-350-4556.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야니' with various film posters.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파이더맨 3' and '스피드 맨'.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못말리는 결혼' and '아들'.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호호문' and '살롱의 거미줄'.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극락도 살인사건' and '못말리는 결혼'.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파이더맨' and '아들'.